



‘개관 90돌’ 단관극장으로 떠나는 영화 나들이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17일~11월 16일
개막작 ‘미스터김, ...’ 봉준호 감독 시네토크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특별전·지역 썬 ‘주목’

1935년 호남 최초 문을 연 극장이자, 전국 유일 단관극장인 함께해온 광주극장이 개관 9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제를 갖는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하는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가 그것이다.

영화제 포문은 순간판 상판식으로 연다. 이 자리에서는 10기 간판학교 워크숍을 통해 간판쟁이 박태규 화가와 이선미 작가, 관객 15명이 40여 일간 완성한 순간판을 공개해 광주극장의 상징성을 더할 예정이다.

개막작은 부산국제영화제를 15년간 이끌었던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의 다큐멘터리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가 장식하며, 김 감독과의 GV(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올해 영화제는 2차 세계대전(1945~1954) 직후 이탈리아에 등장, 전후 현실을 반영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신사실주의)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영화사의 전환점이자 수많은 감독에게 영감인 네오리얼리즘이 어떻게 계승·발전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섹션 1에서는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전쟁 3부작이라 불리는 ‘무방비 도시’와 ‘전화의 저편’, ‘독일 영년’을 비롯해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 ‘움베르토 D’, 루치노 비스콘티의 ‘흔들리는 대지’ 등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작들을 선보인다.

이어 섹션 2에서는 네오리얼리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 사티야지트 레이의 ‘길의 노래’와 ‘불굴의 인간’, ‘아무의 세계’, 알리체 로르바케르의 ‘행복한 라짜로’를 상영한다.

기존 상업영화의 양식을 거부하고 세트 대신 실제 거리와 마을을 배경으로, 전문 배우가 아닌 시민들을 기용한 작품으로 당대 이탈리아 민중의 삶을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꾸준히 소개해온 클래식 아카이브 섹션은 영화사에 획을 그은 장 르누아르 감독의

사실주의 미학이 깃든 ‘토니’부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걸작 ‘모노노케 히메’까지 시대의 범위를 넓힌 작품들로 구성된다.

영화와 음악이 만나는 순간을 담은 스테이지 투스크린 섹션은 뮤지션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채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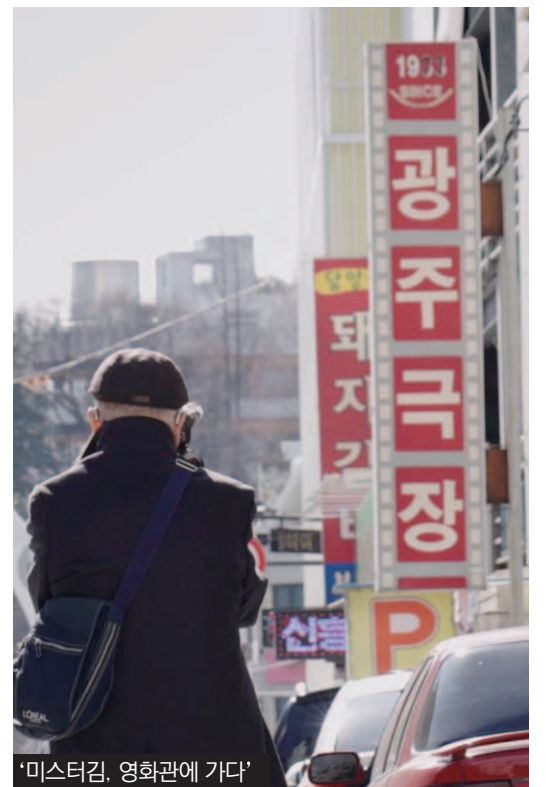
전설적인 콘서트 필름 ‘스탑 메이킹 센스’는 뮤지션 성기완의 뮤직토크와 함께 댄서롱 상영회(11. 15)로, 광주극장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 ‘버터네고 존재하기’는 시네콘서트를 통해 고풍루아블, 여유와 설빈, 최고은 등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11. 1)로 각각 관객들을 찾는다.

또 우리의 극장,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극장에 얽힌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다룬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이 상영된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 상영 뒤에는 GV(11. 14)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봉준호의 극장 노트에서는 ‘플란디스의 개’와 ‘살인의 추억’, ‘마더’(흑백판) 등 연출작 3편과 봉 감독이 직접 추천한 코엔 형제의 걸작 ‘바톤 핑크’, 시드니 루멧 감독의 ‘뜨거운 오후’가 영화 팬들을 기다린다. ‘바톤 핑크’(11. 8) 상영 뒤에는 봉 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시네토크가 예정되고 그의 영화 세계에 대해 심도 있게 들 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독립의 체온 섹션에서는 저예산에 신선하고 기발한 스토리로 시선을 모은 ‘낯술’(10. 18), 광주 영화 선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신기록’과 ‘양림동 소녀’(10. 26)가 각각 GV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한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영화제 기간 김동호,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정성일, 한창욱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 그리고 뮤지션 성기완, 최고은 등 다양한 게스트가 함께하는 토크와 콘서트로 관객과의 다채로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

운 만남을 이어간다”며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에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광주극장이 여러분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순수한 동심과 천진난만한 호기심 투영

김류 동시집 ‘오늘도 비는 쉬지 않았다’ 출간

인간이 아닌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된 김류 시인의 동시집 ‘오늘도 비는 쉬지 않았다’(상상 시인)가 나왔다.

시인의 시심은 아파트에 사는 개는 무슨 생각을 할까, 또는 딱따구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팔까와 같은 호기심 많은 아이라면 누구든 가질 법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이 외부 세계를 대하는 태도마저 편견과 차별 없이 깨끗한 것처럼 그 자체로 순수하다는 전제 아래 시인 역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 시인이 그려내는 세계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배타적인 곳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것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식한다. 시인의 시점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건너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 먼저 배려한다. ‘웃에 붙은 거미줄을 때면서 거미는 황당하겠다’(‘거미줄’)거나 ‘빨랫줄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느낀다’(‘외출타기’)고 노래하는 것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동시집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쏟고 공감하는 자세는 상처를 보듬고 슬픔을 위로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과 천진난만한 호기심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발전해 타인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을 느끼게 한다.

이번 동시집은 ‘둘은 손을 맞잡고’를 비롯해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미는 황당하겠다’, ‘팝콘은 영화광이야’, ‘갈매기는 맨발’ 등 제5부로 구성, 일상 틈틈이 창작한 51편의 작품이 실렸다. 그림은 양민에 작가가 맡았다.

김류 시인은 광주 출생으로 2017년 ‘어린이와 문학’에 동시로, 2024년 ‘시와문화’에 동화로 등단,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여성필이 선사할 ‘브람스 세레나데’

내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창작의 여름 시리즈 5 ‘관현악의 순간’

광주여성필모니오케스트라(광주여성필, 대표 김유정)가 1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브람스, 창작의 여름’ 다섯 번째 무대 ‘관현악의 순간’을 선보인다.

광주여성필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돼 예술적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후 독일 작곡가 브람스가 유럽의 여러도시에서 작곡한 명곡을 중심으로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관현악의 순간’은 브람스의 ‘현악 4중주’와 ‘세레나데 2번’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광주여성필의 악장과 수석, 차석단원들이 출연해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특히 ‘세레나데 2번’은 목관악기 10개 파트와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마르크 폼핀이 편곡한 11중주 버전으로 새롭게 선사한다.

바이올린은 박승원 조국영, 비올라는 권혜린, 첼로는 유경진, 플루트는 박지혜 노신영, 오보에는 박해강 조연후, 클라리넷은 권미리 박수현, 바순은 이지형 한은성, 호른은 장주연 바다경, 더블베이스는 염찬미가 맡는다.

김유정 대표는 “지역 예술계와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며 늘 발전하는 공연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브람스의 음악을 통해 삶의 여유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초대.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